

광주·전남 유통 ‘살충제 계란’ 절반도 회수 못해

도, 22만여개 수거 어려워
재조사 부적합 판정은 없어

‘살충제 계란’을 회수하느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유통이 방대하게 이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 유통량은 이미 소비자들이 섭취했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은 반쯤 안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살충제 검사 항목이 누락돼 ‘부실검사’ 지적이 제기된 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농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당국의 검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7개 농장에서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남에서는 농가나 판매장에서 보관중인 해당 농장 계란 45만7640개 가운데 47% 가량인 21만3600개가 회수됐다. 전남도와 시·군은 나머지 24만4040개도 수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22만8080개는 이미 판매돼 소비자들이 반쯤 섭취한 상태인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주 소재 산란계 농장인 청정농장(13SCCK)과 정화농장(13정화)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광주지역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2곳을 확인하고, 부적합 계란 7만8000개를 긴급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또 시는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도 구매자들로부터 반품을 받는 등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 유통량은 전남도 등 축산당국이 파악한 양 보다 실제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축산당국이 의도적으로 유통량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산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유통량은 지난 15일 출하금지 시점을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로 농가들이 살충제를 출하금지 시점 이전에 뿌린 뒤 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가 아닌 일반 산란계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지자체들이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살충제 검출 여부를 검사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과 관련, 보완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완 조사를 완료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원희기자 cki@

광주 도시공원 개발 이번주 분수령

학계 대안 마련 토론회·민관 거버넌스 구성 결정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단계별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 학계가 오는 22일 중앙·중외·일국·영산강대상공원에 대한 일몰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도시공원의 바람직한 조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각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전문가가 요구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 로드맵 제시 등 참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등 전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구도심 쇠락이 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한 만큼 도시공원과도

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8일로 다가온 수량·마복·송암·봉산 등 4곳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최근 소폭 조정했다. (2면에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700여명 편백향 가득한 명품 숲길 달렸다



제72주년 광복절 기념 제3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7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명품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너릿재옛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화순 소아리 갤러리 앞을 출발해 동구 너릿재 옛길을 도는 코스로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복절 기념 제3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성료

녹음 우거진 숲길 속 흙내음과 빗방울 맞은 수목향기 가득한 너릿재 옛길은 ‘힐링’ 그 자체였다. <관련기사 18면> 제72주년 8·15 광복절기념 제3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가 20일 오전 화순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가 마라톤세상, 화순군체육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너

릿재 소아리 갤러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편백향 가득한 숲길을 따라 너릿재 정상을 거쳐 광주 동구 너릿재 주차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열렸다. 경기는 종목별로 옛길 구간을 5회 왕복하는 풀코스(42.195km)와 3회 왕복하는 25km, 1회만 다녀오는 8.5km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부터 3회째를 이어오고 있

는 대회는 ‘명품숲길’ 코스에 대한 호응이 이어지면서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단체 참가자들이 잇따라 지난 해 500여명보다 많은 700여명의 마라톤 애호가들이 청량감 가득한 숲길을 내달렸다. 2012년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길 10선으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미국 CNN의 여행전문 섹션 ‘CNN GO’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되는 등 자연의 풍광이 고스란히 보존된 너릿재

옛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숲길을 달린다’는 매력 속에 전국의 마라톤 애호가들에게는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 이벤트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회는 개최선언에 이어 김여송 광주일보사장의 대회사로 막이 올랐다. 구충근 화순군수와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등 많은 내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00만 감동 ‘택시운전사’...광주 추모 발길 이어진다

한국영화 15번째 천만 관객
힌츠페터 추모비 방문객 목적
다양한 오월 전시회도 열려

1000만명의 관객이 만섭(송강호 분)의 택시를 타고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을 다녀갔다. <관련기사 3면> ‘5월 광주’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20일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영화는

개봉 3주차, 19일 만인 20일 1000만 관객 돌파했다. 이로써 ‘택시운전사’는 한국영화로는 15번째, 외화 포함 역대 19번째로 1000만 영화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12일·1761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며, ‘부산행’(19일·1156만명)과 같은 속도다.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택시운전사’는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이라

는 점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영화가 인기를 모으면서 주인공 위르겐 힌츠페터와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5·18 기념묘역에 마련된 힌츠페터의 추모비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은 고마움의 편지를 담은 손편지와 꽃을 추모비 앞에 놓아 두는 등 영화의 감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르겐 힌츠페터를 비롯해 80년 5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도 화제다. 광

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는 힌츠페터가 촬영한 사진과 영화제작에 쓰였던 브리사 택시, 유폴인 안경·여권 등을 만날 수 있는 ‘아! 위르겐 힌츠페터 5·18 광주진실전 그리고 택시운전사’전(9월3일까지)이 열린다. 또 5·18 기념재단은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기획전을 개최한다. 그밖에 택시를 타고 5월 사적지와 영화 속 장소를 둘러보는 ‘5·18 택시운전사’도 22일부터 운영된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